

조선산업



불리한 환율 움직임과 한국 수주량 감소 추세 지속

산업분석

2025. 08. 28

treaboat@treaboat.com

산업 전망

원화 약세와 한국 조선업 수주량 급감 지속

8월 한국 조선업 수주량은 삼성중공의 LNG선 6척으로 514,326CGT를 보였다. 지난해 8월과 전월의 수주량보다는 증가되었지만 여전히 한국 조선업의 수주량 추이는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조선업은 역사적으로 원화 환율이 미국 달러화에 대해 강세 구간에서 수주량이 증가되었는데 최근 몇 년간 원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한국 조선소들의 선박 수주량은 간헐적인 계약이 있을 뿐 대량 수주가 계속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원화 환율은 달러화에 대해 1,400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한국 조선소의 선박 수주량은 약세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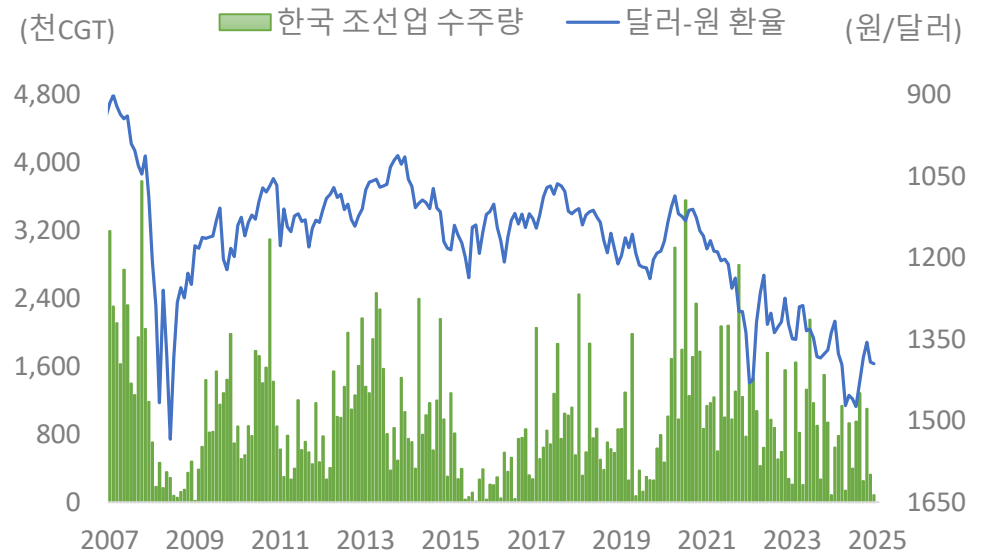
환율 변동과 수주 선가의 변화

한국 조선업은 선박 설계와 건조원가가 원화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선주사를 대상으로 원화 선가를 포기하지 않는 수주 영업을 수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원화 선가를 고정시킨 후 달러 환율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달러 선가를 두고 선주와 수주 영업을 진행한다. 원화가 강세가 되면 달러 선가는 오르게 되고 원화가 약세가 되면 달러 선가는 내려가게 된다. 원화 약세 구간에서는 선주들이 추가적인 선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선박 발주 속도를 조절하게 된다. 조선소의 환평가 이익 발생을 두고 선가 인하 압력을 높이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원화 강세가 되면 고정된 원화 선가를 기준으로 달러 선가가 높아지므로 선주들의 선박 투자 속도는 빨라지게 된다. 조선소의 단기적인 영업실적은 원화 약세가 유리하겠지만 선박 수주 영업에서는 원화 강세가 필요한 것이다.

8월에도 중국의 수주 점유율 65% 상회

8월의 선박 발주량은 150만CGT이고 이중 중국은 66%, 98만CGT를 가져갔다. 한국은 LNG선 6척으로 수주점유율은 34% 수준이다. 중국은 컨테이너선을 전량 수주하면서 65%를 상회하는 높은 수주점유율을 유지했다. 원화 약세 국면과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인한 물동량 위축으로 한국 조선업의 부진한 수주실적은 지속될 전망이다.

[그림1] 원화 약세와 한국 수주량 감소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 목적이 아닌 전반적인 산업 전망과 기업 경영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은 물론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